

# 의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 Career Guidance Program Design for the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유효현\*, 박귀화\*\*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Hyo-Hyun Yoo(hhyoo@jbnu.ac.kr)\*, Kwi-Hwa Park(ghpark@gachon.ac.kr)\*\*

### 요약

본 연구목적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흥미와 적성 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요구조사에 기초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C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총 211명을 대상으로 대학차원에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시작 시기, 전공선택을 위한 정보수집방법, 흥미-적성-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 진로지도를 위해 제공해주길 원하는 정보,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진로지도 프로그램 시작 시기는 3학년, 4학년, 모든 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선택을 위한 정보는 주로 선배와 직접 체험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흥미를 가진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전공 및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적성과 흥미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은 자신의 적성을 모르거나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진로지도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교 여건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진로지도 | 진로지도 프로그램 | 진로요구조사 | 의학전문대학원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career guidance program based on the research of career demand in order to help students choose and prepare careers suitable to students' interests and aptitude. The study surveyed 211 students in the 3<sup>rd</sup> and 4<sup>th</sup> years of C medical school. The survey was about start time of career guidance by medical schools, information collecting method for major selection, conformity degree among interest-aptitude-major after graduation, demanded information for career guidance, considerations in selecting majors, the reasons for not being able to select majors, etc. The result showed that students thought that start time of career guidance should be good for juniors, seniors, or all grades in order. The students got the information about career selection mostly from the direct contact with seniors. Students who had already decided the career, showed the high conformity degree among interest-aptitude-major after graduation. Students who had already decided the majors, highly considered the aptitude and interest, while students who had not decided the majors, did not know their aptitude or did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majors. This study gave the basic direction for the career guidance and provided necessary information for designing customized career guidance programs by reconstructing contents of the programs according to school conditions.

■ keyword : | Career Guidance | Career Guidance Program | Career Demand Research |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 |

## I. 서론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의학교육 대상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소양과 자질 등을 갖추며, 보다 성숙하고 뚜렷한 학습동기를 가진다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1]. 또한 다양한 개인적,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이며,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임상 의사로서의 의료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2].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졸업시점에는 자신의 특성과 주변상황 등에 따라 대부분 임상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의학과 관련된 직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선행연구 결과[4]를 통해 다양한 의료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이나 정보제공, 전공선택 등을 지원해주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대학차원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대학졸업생들의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5]. 그러나 일반 대학차원에서는 의전원의 경우 이미 의료인이라는 확실한 진로를 결정한 상태의 학생들이고, 졸업 후에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 중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나 의전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와 관련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 의과대학이나 의전원 자체적으로 진로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운영측면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6].

특수성을 반영한 의과대학생이나 의전원생을 위한 진로지도 기회, 진로교육 지원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의사라는 직업과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전공과에 대한 만족도의 낮은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 비율이 약 18%이며[7],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20%이상이고[8], 자기가 선택한 전공과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공의 1년차 28.8%, 2년차 19.0%, 3년차 12.0%, 4년차가 17.6%, 5년차 6.5%, 6년차 이상 16.7%로 나타났다[9].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등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10].

의과대학생이나 의전원생들은 의료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의학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후에는 자신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전공 영역을 선택하고 전공의 교육을 받게 되고, 전공의 수련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문의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진로개발과정을 겪는다[11]. 이러한 일련의 진로개발과정은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대학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80%이상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구결과[12]는 진로지도나 교육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진로를 원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 체계적인 진로개발방법 등의 진로지도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의전원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에 대한 의전원생의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및 의전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진로지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교 여건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로지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의의가 있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C의전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총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는 3학년 104명, 4학년 107명이었고, 성별분포는 남학생 103명,

여학생 108명이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된 요구조사 문항은 학교차원에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시작 시기, 전공선택을 위한 주요 정보수집방법, 진로지도를 위해 제공해주길 원하는 정보나 자료, 흥미-적성-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사항,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 등을 질문한 내용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구조사 설문문항은 진로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5][13][14] 재구성하였으며, 의학 및 교육학 전공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2단계를 거쳐 개발하였다. 1단계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3, 4학년 대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로상담전문가 1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2단계는 학습자 요구분석 결과와 일반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진로상담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틀을 구성하였고, 프로그램운동을 위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또 학습목표, 주요내용, 교수방법, 결과물 등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의학 및 교육학 전공자 1인, 진로상담전문가 1인, 의학 전공자 1인에게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은 후 수정하였다.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전공과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X^2$ )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1.1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제공 시기 및 정보수집방법  
학교차원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95.7%, 필요

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4.3%로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언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3학년(36.4%), 4학년(35.4%), 모든 학년(22.3%)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하거나 고민할 때 정보 수집은 선배(인턴, 전공의 등)를 통해서가 55.1%로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과 같은 직접 자신이 경험하거나 체험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30.9%로 나타났다[표 1].

표 1. 프로그램의 제공시기 및 정보수집방법

	학년	%
제공 시기	1학년	1.5
	2학년	4.4
	3학년	36.4
	4학년	35.4
	모든학년	22.3
정보 수집 방법	교수	1.6
	선배(인턴, 레지던트 등)	55.1
	친구	7.0
	가족	2.9
	자기 경험(임상실습 등)	30.9
	인터넷	2.5

#### 1.2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전공과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 및 전공결정시 고려사항

졸업 후 전공의 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결정된 학생이 13.3%, 미결정한 학생이 86.7%로 미결정 학생이 많게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흥미를 가진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전공, 졸업 후 전공을 질문하고 이들 간의 일치정도를 차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치 비율이 높았다[표 2].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점은 적성과 흥미(30.8%), 희망하는 전공과의 분위기(26.9%), 신체적 여건(15.5%) 순으로 나타났다[표 3]. 불일치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공과가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경쟁이 심할 것 같아서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신의 적성을 몰라서(55.5%), 전공과에 대한 정보 부족(34.1%), 성적(5.5%), 생각해보지 않아서(0.5%), 기타(4.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선발기준이 불명확해서 등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표 3].

이러한 결과는 흥미와 적성이 평생 진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자기이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흥미-적성-졸업 후 전공 일치간 차이

구분	일치	불일치	$\chi^2$
흥미-졸업 후 전공	3학년	7(64.0%)	1(36.0%)
	4학년	15(88.2%)	2(11.8%)
적성-졸업 후 전공	3학년	9(100%)	0
	4학년	15(88.2%)	2(11.8%)

표 3. 진로결정 및 미결정 이유

	구분	%
진로 결정시 고려 사항	적성이나 흥미	30.8
	희망한 전공과의 분위기	26.9
	신체적 여건	15.5
	환자와의 접촉기회	7.7
	전공과의 명성과 권위	7.7
	높은 경제적 소득	3.8
	레지던트과정의 힘든 정도	3.8
	가족이나 주변인의 의견이나 추천	3.8
진로 미결정 이유	합계	100
	아직 내 적성을 잘 몰라서	55.5
	전공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4.1
	성적 때문에	5.5
	생각해보지 않아서	0.5
	기타	4.4
	합계	100

1.3 진로와 관련된 정보 요구사항

대학차원에서 진로 혹은 전공과 관련된 어떤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주기를 원하는지를 개방형질문으로 질문한 결과(표 4), 전공별로 실제 하는 일이나 전반적인 분위기, 수련 교육과정, 전공을 수련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성격 등에 대한 전공별 현황 정보(31.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전공별 모집정원현황, 지원 자격 등의 전공별 선발기준과 관련된 정보(22.1%), 근무환경, 급여, 복지수준 등과 관련된 전공별 근로조건(15.6%), 전문의 이후 취업현황(26.6%)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기타(7%) 전공과별 설명회나 다양한 체험기회 등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표 4. 진로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보

영역	내용	%
전공별 현황	실제하는 일, 분위기, 교육과정, 과별로 요구되는 능력이나 성격 등	31.2
전공별 선발 기준	모집정원현황, 지원자격, 성적, 경쟁률 등	22.1
전공별 근로 조건	복지수준, 경제수준, 근무환경 등	15.6
전문의 이후 진로	전문의 이후의 취업 현황 등	26.6
기타	전공과설명회, 서브인턴 같은 체험기회 등	4.5

2.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을 찾고, 의료와 관련된 직업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표 5).

표 5.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목표	주요활동	대상	시간	교수전략	결과물	
1 단계	자기 이해	자기 성격 이해	1,2 학년	4	강의, 심리검사, 활동지, 역할놀이,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자기이해 바탕으로 진로설계 계획서
		흥미와 적성 찾기	1,2 학년	4	강의, 심리검사,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2 단계	진로탐색의 결정능력 향상	진로탐색을 방해하는 요인 찾기	1-4 학년	2	강의,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의사결정 단계별 진로탐색 보고서
		의료관련 진출 가능 분야 탐색	1-4 학년	2	강의, 동영상,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의사결정 유형 진단	1-4 학년	4	강의, 심리검사,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의사결정단계에 따른 진로탐색	1-4 학년	2	강의,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3 단계	체험 및 모정	전공분야별 교수, 선배와의 만남	3-4 학년	2 (1인당)	강의, 활동계획서, 질의응답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체험활동 보고서
		선택한 전공 체험	3-4 학년	1 주 이상	활동계획서 (서브인턴, 학생인턴, 임상실습등)	
4 단계	진결과비	전공의 모집 관련 정보 수집	3-4 학년	2	강의,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포트폴리오
		준비계획수립 (방해요인해결하기포함)	3-4 학년	2	강의, 활동지, 자기성찰보고서	
		면접 등 준비	4학년	2	강의, 활동지, 역할놀이 자기성찰보고서	

1단계는 자기이해를 목표로 개발하였다. 흥미·적성에 적합하다고 인식한 전공과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가 높고[표 2], 진로 결정과 미결정 이유가 적성과 관련된 다[표 3]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통하여 자신이 생각한 자기 모습과 검사결과로 나온 자기 모습을 비교하여 자기를 이해하도록 하며, 역할놀이 등을 통해 타인과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학습하도록 운영한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 관련 직종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거나 연결되는 전공분야를 찾아보는 활동 등을 활동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2단계는 진로탐색과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진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제공 받고 싶은 정보로 전공별 전반적인 현황인 연구결과[표 4]를 반영하여 의사결정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신의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하며 단점에 보다 관심을 갖고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의사결정단계에 따라 진로탐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의료와 관련된 진출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를 선택해 보고 그 선택을 평가해 보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운영한다.

3단계는 실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1, 2단계에 기초한 진로결정을 목표로 한다. 임상실습이나 의료봉사,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서 경험해보거나 관심 있는 전공분야의 교수나 선배와의 만남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공선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학교 상황에 따라 재구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선배와의 만남 내용은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4단계는 결정한 진로를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정한 전공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서류나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활동시간에는 반드시 활동의 목적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여 동기 등을 높이도록 해야 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과 대상학년은 교육과정, 수업 시간 등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재구성할 수 있으나 단계별로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프로그램 활동에 따라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구성한 활동에 따라 그룹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활동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제공해주어야 한다.

####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의전원 학생들이 한 사람으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요구조사에 기초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많은 의과대학생들이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는 선행 연구 결과[12]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생보다 성숙한 학생인 의전원의 많은 학생들도 진로지도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진로 결정자보다 진로 미결정자가 많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미 의료인이라는 진로를 결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것은 세부 전공 선택에 대한 부담감과 의료인으로서 기대했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함에서 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진로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의료인으로서 삶에 대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여 의료인이라는 진로 결정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12] 지도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과 진로(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수록 향후 선택한 전공진로에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커지며 긍정적인 직업관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13].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는 졸업하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따라서 3, 4학년 때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학년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비율도 3, 4학년 비율보다 낮지만 높은 편이고, 임상실습 교육을 받는 시기에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의학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조기에 알고 진로를 선택할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으며[15], 이미 국외 의과대학에서는 전 학년에 걸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16][17]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진로와 연결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합리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배와 임상실습과 같은 직접 체험을 통해 얻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많은 학생들은 선배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전공을 선택해 왔으나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미 먼저 경험한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배 등을 통한 정보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자기 스스로 필요한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을 점검하여 선배 등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직접 체험을 통한 정보 습득도 활동계획을 세운 후 그에 적합한 체험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흥미를 가진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전공 및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가 높고 전공 선택에 적성과 흥미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학생들은 전공별 현황, 선발기준, 근로조건, 전문의 이후 진로 등 전공과에 대한 정보를 진로지도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2]. 전공과에 대한 정보는 유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 안내, 정기적인 설명회, 세미나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료와 관련된 진로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진로선택은 삶을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이며,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로 평생 동안 의료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8]. 그러나 현재 많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은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결정을 도와주는 진로지도 체계나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12][17]. 그 원인 중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것이 교수가 해야 하는 책임[19]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차원에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교수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진로지도 방법 등에 대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진로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실제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전원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모든 학년에서 단계에 적절하도록 심층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찾도록 도와주는 내용과 직업가치관, 진로 관련 정보습득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므로 이를 위한 학교와 교수진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생의 진로관련 연구는 주로 진로에 대한 요구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의전원에서의 진로지도 필요성과 그 방향을 인식하고 이를 정립해나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의 진로지도 프로

그램 모델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 의전원 3,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지도 요구조사 결과만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과 개발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전 학년과 교수진, 학교관계자 등으로 확대하여 기초 자료를 더욱 확고히 하고,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노혜린,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차별화 방안”, 한양의학논단, 제32호, 제1권, pp.17-24, 2012.

[2] 최종상, 서덕준, 채종일, 오희철, 황익근, 강대영,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바람직한 학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제8권, 제2호, pp.189-99, 1996.

[3] 이지혜, 김건일, 박귀화, 윤소정, “의학전문대학원 생과 의과대학생의 전문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의학교육, 제21호, 제4호, pp.393-402, 2009.

[4] 김형준, 박서진, 김정은, 박은철, 이후연,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의학교육, 제15권, 제2호, pp.151-161, 2003.

[5]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제49권, 제1호, pp.63-92, 2011.

[6] 김재철, 성경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의 실태현황, 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 교육연구, 제16권, pp.97-118, 2008.

[7] 임금자, 윤현병, “의사의 다양한 진로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06.

[8] J. P. Leigh, R. L. Kravitz, M. Schembri, S. J. Samuels, and S. Mobley, “Physician career satisfaction across specialties,” Arch Intern Med, Vol.162, No.14, pp.1577-1584, 2002.

[9] A. D. Taylor, A. Sinclair, and E. M. Wall, “Sources of stress in postgraduate medical training,” J Med Educ, Vol.62, No.5, pp.425-428, 1987.

[10] J. S. Haas, E. F. Cook, A. L. Puopolo, H. R. Burstin, P. D. Cleary, and T. A. Brennan, “Is the professional satisfaction of general internists associated with patient satisfaction?,” J Gen Intern Med, Vol.15, No.2, pp.122-128, 2000.

[11] M. L. Savickas,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physician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J Vocat Behav, Vol.25, No.1, pp.106-123, 1984.

[12] 정선주, 서동혁, 김용일,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모델의 개발”, 한국의학교육, 제13권, 제2호, pp.309-315, 2001.

[13] 김영희,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월, 제12호, pp.817-828, 2013.

[14] 한재진, 이순남, 권복규, 박혜숙, 임현정, 김태은, 안정희,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배경 및 특성 비교”, 한국의학교육, 제2권, 제1호, pp.11-21, 2008.

[15] 김선, 한순미, 박종연, 김혜숙, 전우택, 박효정, 양은배, 이무상, “의학적성검사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제12권, 제2호, pp.241-260, 2000.

[16] 이지현, *고등교육단계에서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17] 김준환, 이금호, 황원민, 강재구, “의과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적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경험”, 한국의학교육, 제25권, 제2호, pp.157-165, 2013.

[18] L. J. Fernandez, J. F. Julio, F. Hidalgo, F. Garciaa, P. Moreno, J. L. Vega, and J. M. Ribera, “Survey of residents on satisfaction after obtaining a hospital post,” Med Clin(Barc), Vol.109, No.16, pp.615-618, 1997.

[19]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Student guide: Setting a course for career  
success, Washington, DC:AAMC, 2006.

저 자 소 개

유 효 현(Hyo-Hyun Yoo)

정회원



- 1999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과(학사)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교육학  
과(석사)
- 2006년 2월 : 홍익대학교 교육학  
과(박사)

▪ 현재 :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기금교수  
<관심분야> : 의학교육, 교육과정평가, 수업개선

박 귀 화(Kwi-Hwa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부산대학교 아동가  
족학과(학사)
- 2001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  
과(석사)
- 2012년 2월 : 중앙대학교 교육학  
과(박사)

▪ 현재 :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 의학교육, 교육심리, 진로, 학습